2. 어떤 꿈을 가질까?

처음 배우는 사람은 먼저 꿈을 가져야 하니, 반드시 聖人(성인)이 되기를 스스로 約束(약속)하여 털끝만큼이라도 自身을 보잘것없다고 여겨서 핑계대려는 생각을 말아야 한다.

보통사람이나 聖人(성인)이나 人間의 타고난 性品(성품)*은 똑같다. 맹자께서 人間의 타고난 性品(성품)은 착하다고 하시면서

"사람은 모두 요임금과 순임금*처럼 될 수 있다."

고 하셨으니, 어찌 우리를 속였겠는가?

사람의 身體(신체)와 외모는 마음대로 고칠 수 없지만, 오직 마음과 꿈만은 어리석은 것을 변화시켜 슬기롭게 하며, 못난 것을 변화시켜 착하게 만들 수 있으니, 마음이 身體(신체)와 다르기 때문이다.

지혜로운 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고, 착한 것보다 貴한 것이 없거늘, 무엇이 괴로워서 지혜롭고 착하지 못하여 타고난 性品(성품)을 망치는가? (『격몽요결』「입지장」)

*타고난 性品(성품) : 태어나면서부터 본래적으로 지닌 성질을 말함
*요임금과 순임금 : 중국 고대 성인으로 알려진 두 임금

성인이 될 수 있는 근거와 가능성

목표 : 성인되기

↑

방법 : 보통사람의 마음과 꿈을 변화시켜서

↑

가능성 : 모든 사람의 성품은 똑같다.

↑

근거 : 인간의 타고난 성품은 착하다(맹자의 성선설)

본문 해설

공부의 목표가 聖人(성인)이 되어야 한다는 율곡 선생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? 당연히 안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는 까닭이 있어요.

어째서 보통 사람도 공자님과 같은 성인이 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있어야 하찮아요? 아무리 돼지에게 한글을 가르친다고 해서 돼지가 글을 읽겠어요? 다 근거를 가지고 한 말이에요.

바로 본문에 사람의 타고난 성품은 모두 똑같다는 것과 또 孟子(맹자)가 사람의 타고난 성품은 착하다고 한 말이 그것이에요.

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맹자의 그 유명한 性善說(성선설)과 관계된 말이에요. 곧 사람은 착하게 태어났다는 말이지요. 그럼 맹자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묻겠지요?

맹자는 이렇게 증명해요. 너무 어려서 걷지도 못하는 아이가 엉금엉금 기어서 우물(옛날의 턱이 낮은 우물)에 빠지려고 할 때 그걸 보는 사람은 누구나 깜짝 놀라 못 빠지게 막는다고 해요.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어린아이가 불쌍해서 말이지요.

이런 일은 지금도 있어요. 예를 들어 겨우 걸음마만 할 줄 아는 아이가 찻길에 걸어가면 보는 사람 누구나 깜짝 놀라 아이를 들어다 부모에게 데려다 줄 거예요. 그 아이가 위험하기 때문이지요. 어째든 이런 사례를 보면 사람이 원래부터 착한 구석은 있나 봐요.

그런데 사람이 실제로 착하지 않는 것은 날 때부터 착한 그 본마음을 놓아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해요. 그 본마음을 잘 길러 넓혀 나가면 요임금·순임금과 같은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. 여러분은 그런 본 마음을 간직하고 있나요?

율곡 先生은 공자와 맹자의 學問을 이은 유학자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것이에요. 이왕 工夫를 하기로 했으니 크게 목표를 세워 聖人(성인)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지요. 좋지 못한 마음을 변화시켜 타고난 착한 본 마음을 잘 보존하고 길러나가면 언젠가 聖人(성인)이 된다고 보았지요. 그만큼 人間을 믿었기 때문이에요.

생각해 볼 문제

1. 나의 꿈은 무엇입니까? 아래 (보기)에서 골라 적어보세요. (　　)

〈보기〉	농부, 어부, 작가, 과학자, 연예인, 가수, 운동선수, 교사, 교수, 법관, 기술자, 의사, 간호사, 예술가, 종교인, 요리사, 비행사, 군인, 경찰, 정치가, 만화가, 상인, 기업가, 기타(　　)

2. 다음은 앞에서 성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말한 문장이다. (　　)안에 알맞은 낱말을 써 보시오.

보통 사람도 요임금·순임금처럼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(　　)과 (　　)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.

3. 『격몽요결』을 읽어보면 성인이란 공자·석가·예수처럼 사람들이 숭배하는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, 누구나 될 수 있는 인물이다. 만약 여러분이 아래의 직업을 가졌을 때, 각자가 성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일해야 할까요?

가. 의사 :

나. 기업가 :

4. 『격몽요결』에서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, 오늘날 성인이 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요?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할까요? 각자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.

성인이란

한자·한문 익히기

1.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.

뜻	성스러울	묶을	묶을	성품	물건	몸
한자	聖	約	束	性	品	體
음	성	약	속	성	품	체

2. 한자어의 쓰임을 보고 □ 안에 알맞은 음을 써 보자.

聖賢(□현) : 성인과 賢人(현인)

節約(절□) : 아끼어 씀

拘束(구□) : 자유를 억제함. 붙잡아 끌어 속박함

性格(□격) : 사람 마음의 성질.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

賞品(상□) : 상으로 주는 물품

體驗(□험) : 몸소 경험함

3. 다음 한자어에 맞은 음을 (　　)안에 써 넣어 봅시다.

가. 보통사람도 정말 聖人(　　)이 될 수 있을까?

나. 約束(　　)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.

다. 우리 동네에는 性品(　　)이 훌륭한 어른이 계신다.

라. 身體(　　)와 머리카락과 피부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.

4. 다음 □ 속에 한자의 음을 써 넣고, 큰 소리로 여러 번 읽어 보시오.

衆人與聖人(중□여□□)이 其本性則一也(기□□즉□야)라.

- 풀이 : 衆(중)-무리, 衆人(중인)-많은 사람 곧 보통사람들, 與(여)-~와(과), 其(기)-그, 本(본)-근본, 本性(본성)-타고난 성품, 則(즉)-곧, 一(일)-한 가지 또는 같다, 也(야)-문장 끝에 오는 어조사로 뜻이 없음
- 해석 : 보통사람과 성인이 그 본성은 똑같다.

관련된 이야기

聖人이 되고자 한 아이

이런 전기가 전해오고 있어요. 중국 명나라 때 유명한 학자이자 문학가이며 또 군사지휘관이었던 王守仁(왕수인)이라는 분의 어릴 때 이야기에요.

왕수인이 언젠가 서당의 先生에게 물어 말하기를, "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?"라고 묻자, 서당 先生이 말하였어요.

"과거에 합격하여 벼슬이 높아지고 어버이의 이름을 세상에 떨쳐 父母를 높이는 것이라면 최고의 일이지."

"과거에 합격하여 벼슬이 높아지는 사람은 세상에 많이 있는데, 어찌 최고의 일이라 할 수 있습니까?"

"그렇다면 너는 무슨 일이 최고라고 생각하느냐?"라고 하자, 그가 말했어요.

"聖人이 되는 것이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"

어릴 때부터 聖人이 될 거라는 이런 꿈은 생뚱맞지 않나요? 그러나 앞의 『격몽요결』에서도 말했듯이 그 일이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닌 거예요.

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聖人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직업이나 하고 싶은 일을 다 버리고 예수나 석가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.

이것은 직업을 갖고 혼인하고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면서 聖人이 되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.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지혜롭고 착하게 살면서 될 수 있는 거지요. 그러나 이렇게 지혜를 갖고 착하게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工夫가 필요한 것이에요. 다만 工夫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聖人이 되겠다는 꿈부터 갖는 것이 중요하지요.

그렇다면 왜 聖人이 되어야 하지요? 그냥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나요?

관련 인성 가치	공통